

빠른 진실규명을 바란다

기고

신중재
(사)한국전쟁영양군
유족회장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은 마음을 쓸쓸하게 한다. 지난 달 초순에 한국전쟁 전후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전남 합동 추모제를 우리군 유족회에서 주관했다. 마음을 모아 정성껏 제찬을 마련하여 500여명의 유족들과 함께 제사를 지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행사는 무난했다. 24일에는 군 유족회의 합동 추모제도 모셨다. 역을하게 먼저 이승을 떠난 1,300여 명의 영령들을 위무하고 천상에서 영면하시기를 기원했다.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겠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공권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르고 파리 목숨처럼 죽임을 당했다. 아무리 이해하고 또 이해하며 생각해 봐도 피해 당사자나 그 슬하의 가족들은 너무나 원망스럽다. 억울하다. 73년의 세월이 흘러도 가해자는 뚜렷이 없다. 가해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 한마디가 없으니..., 핏덩이가 어느덧 늙어 할머니가 되고 얼굴에는 저승꽃이 피기 시작한다. 먼저 가신 아버지 곁에 언제 갈지 모르는 일이다.

한국전쟁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에 시달려 주린 배를 채우지 못해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延命)하여 고학(苦學)으로 겨우겨우 최소한의 학력만을 가진 사회생활은 쓸쓸함과 외로움의 나날들이었다. 그 괴로웠던 지난 날들의 슬픔을 누가 알아 주랴..., 어머니 슬픈 통곡 소리로 날마다 목이 메게 울며 눈물로 밥을 말아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다. 누구나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인 줄로만 알았다.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족하여 만족할 수만은 없지만

그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 소극적이고 미미하다. 갈증이 심하다. 언제 그 많은 신청자들의 진실을 밝혀 한을 풀어 줄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무릇 모든 일에는 처리 계획이 있을 텐데 처리 기간 안에 진실이 규명될지 궁금하기만 하다.

영양군 현재의 진실규명 상황을 들춰보면 군경에 의한 희생자는 보도연맹 사건을 포함하여 590명의 신청서를 유족회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인적으로 신청한 사람도 23명이다. 작년 말에 22명, 금년 9월에 110명, 총 132명(22%)이 결정됐다. 적대세력에 의한 진실규명은 238명 중에서 작년 8월에 133명(56%) 결정됐다. 결정문을 받은 유족은 현재 265명(31%)이다. 12월 19일 심의회에서 몇 명이나 결정될지 가슴이 떨린다. 상해자, 소멸시효자, 형무소 희생자, 행불자는 모두 35명인데 한 명도 결정되지 못했다.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자녀는 부모를 잃고 시신조차 거두지 못하여 어느 산골짜기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뼈한 조각조각 거두지 못한 기막힌 사연을 누가 알아주며 증거 불충분으로 진실을 밝히는 일을 뒤로 미룬다면 어찌 진실화해위원회의 옳은 처사인지? 희생자 자식들이 늙어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너희 아버지는 적대세력자가 아니었다. 부역자나 부역 혐의자가 아니었다.' 라고 진실을 확실히 규명해 주어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까?

'부역자'는 당시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부역행위를 한 '범법자'로 확인된 민간인을 말한다. 반면 '부역혐의자'는 당시 사법부에 의해 아무런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역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민간인을 말한다. '혐의자'는 법적으로 피해자 신분이므로 처벌 대상은 아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옆구리에 죽창을 들이대고 총칼로 쏘실 때 먹을 것을 안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들에게 동조했으니 너희들은 한 통속이며 부역자란 말인가? 밤에는 적대세력에 당하고 낮에는 그들에게 동조했다고 가차 없이 경찰에게 죽임을 당했다.

진실규명결정서 책자를 살펴보면 이것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이 태반이다. 어찌 군경에게 희생된 사람들은 진실을 규명하여 배·보상의 길이 열리게 하고, 군경의 가족이나 공무원, 부자로 살던 사람들은 적대세력들에게 한 집안이 몰살 당했어도 죽음의 진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인가? 피해나 희생된 사실보다 가해자에 따라 진실을 규명한다면 그 척도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나주부대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적대세력의 복장으로 변복하고 적대세력 동료들을 불러내어 희생시켰다고 한다. 사실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어린 핏덩이들이 경찰과 적대세력을 구별할 수 있었겠으며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며 살상을 저질렀는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희생된 사람만을 보고 판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월이 흐르고 있다. 하루빨리 빠짐없이 진실을 규명하여 주기를 바라고 규명해야 할 시간이 부족하면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발 벗고 나서서 국가와 국회에 조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주기 바란다. 현행 특별법에는 내년 5월 26일까지 진행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전수(全數)를 규명할 수 없을 것만 같다. 그렇다면 큰일이 아닌가?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인들의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간곡히 부탁한다.

우리 유족들은 부모·형제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다시는 이 땅에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에 촉구하고, 탄원하며 교과서에 수록하여 후대까지 전쟁 피해의 참혹함을 알려야 한다. '역사를 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신채호 선생의 말을 교훈 삼았으면 한다.

社說

도심 속 빛 축제 찾아 큰 위안 얻어가길

연말까지 광주 곳곳 겨울축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광주 도심 곳곳에서 '빛'을 주제로 한 겨울 축제가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직동에서 양림동, 아시아음식문화지구를 거쳐 5·18민주광장과 동명동까지 광주의 구석구석에서 열리는 빛 축제가 시민은 물론이고 외지 관광객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밝혀주길 기대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직동-양림동-아시아음식문화지구-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동명동 일원에서 '크리스마스@광주빛축제'를 연말까지 개최한다. '크리스마스@광주빛축제'는 광주시의 축제 브랜딩 정책에 따라 겨울철의 각종 축제를 연계 통합한 것이다. 화려한 빛 조명물과 함께 크리스마스합창제·버스킹공연·벼룩시장(플리마켓) 등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많은 이들이 아름답고 따스한 빛의 향연을 찾아 겨울철 움츠러드는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난달 말부터 공식운영에 들어간

사직공원 '빛의 숲'은 수 많은 소망이 공원에 은하수로 쏟아지는 콘셉트로 채워졌다. 양림동 일원에서는 지난 2일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양림 & 크리스마스 축제가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옛 시청 주변에 자리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서도 2023년 1월 말까지 화려한 빛으로 특화시킨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겨울축제가 마련된다. 5·18민주광장과 동리단길로 불리는 동명동 거리, 광주시청 앞 잔디광장 등에서도 대형트리와 아름다운 빛 조명물을 만끽할 수 있다.

연말을 맞아 되돌아본 지난 한 해는 유난히 힘들었다. 정부는 실정을 거들었고 이를 제어해야 할 야당은 존재감 없이 자신들의 생존에만 급급했다.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소외받는 서민과 청년들이 광주가 마련한 빛의 축제를 찾아 작은 위안을 얻어가길 기원한다. 지속가능한 축제를 만들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도 필요하다. 수많은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콘텐츠로는 관광객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내놓으려는 축제 관계자의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학교·유치원 '무석면 교실' 절실하다

학교 이어 사립유치원도 심각

광주·전남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지역 사립유치원 17곳, 1878명의 원아들이 석면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석면 관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136개 원 중 17개 원(12.5%)이 석면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사립유치원의 전체 석면 면적은 8865㎡로 1878명의 원아들이 노출되고 있다. 공립유치원과는 다르게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석면제거 지원 예산이 없고 비용이 막대해 석면제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어서 건물 보수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며 시교육청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예산 지원이 어렵다.

학교 석면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493개 학교에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남아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석면 학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광주 100곳, 전남 393곳의 학교가 석면 학교로 파악됐다. 석면제거도 더디다. 광주의 경우 초등학교 49곳, 중학교 64곳, 고등학교 45곳에 석면이 남아있었고 지난 여름방학 중 초 4곳, 중 1곳이 철거되는 데 그쳤다. 전남도 초 201곳, 중 118곳, 고교 74곳이 석면 학교로 집계됐으나 여름방학 기간 초 11곳, 중 7곳, 고 5곳에서 석면 철거 공사가 이뤄진 게 전부다.

석면에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이다. 유치원과 학교는 미래세대를 키우는 요람이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을 익히는 공간이 석면에 노출될 경우 아이들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광주·전남 학교는 '석면 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수 학생과 원아들 뿐 아니라 교직원도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당국은 석면제거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석면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서석대



“광주의 승리다. 기쁘고 감격스럽다. 유권자의 성원을 생각하니 부담도 크다.” 지난 1996년 4월 11일 늦은 밤.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이날 광주 북갑 선거구는 환호와 함께 기쁨의 눈물로 가득했다. 14대에 이어 재선에 도전한 이는 박광태. 이날 투표에서 그는 92.7%라는 압도적인 투표율로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앞선 13대, 같은 지역구 총선에서 평화민주당 정웅 후보가 세웠던 전국 최고 득표율 기록도 바꿔치기 했다. “나에게 표를 준 8만 3596명의 유권자를 꼭 기억하고 싶었다.”는 게 박광태의 회고다.

김대중 정부 출범 첫 해인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에 광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5000억 원을 산업자원부 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때 박광태가 반대를 주도한 경남의 한 의원을 복도로 불러내 '전라도에 뭘 원수진 일이 있냐'며 정강이를 건어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결위가 정회되는 소동을 빚었지만 박광태의 사과로 예산안은 통과됐다. 지금 광주의 주력산업인 광산업이 박광태의 '막무가내'가 만들어낸 성과인 셈이다.

박정희 정권 때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박광태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면서 정치규제를 당했다. 군사 정권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1984년 해금되면서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천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북구 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후 16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광주시장도 두 차례 역임했다. 2019년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장으로 취임해 GGM의 안착에 기여했다.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초대 대표이사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6일 퇴임했다. 그는 4년여 동안 허허벌판에 공장을 세우고, 회사 설립 2년 만에 자동차를 만드는 저력을 보여줬다. 그야말로 '막무가내 정신'이 만들어낸 신화다. GGM의 두번째 도약을 위한 전기차 개발도 마무리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위탁 생산기업을 염원했던 박광태의 꿈은 오로지 '광주의 발전'에 있었다. 언론을 두려워하고 시민을 무시워 했던 박광태.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 저돌적으로 나섰던 박광태의 '막무가내 정신'이 벌써부터 그리워진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36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